

# 학교수업·과외활동 긴장 풀지 말고 평소대로

## 지원서 제출 후 해야 할 과제들

이제 대학진학을 위한 지원서 제출이 모두 끝났다. 몇달을 많은 대학에 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다 보니 다소 피곤하겠지만, 아직 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고 꼭 실천해야 한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여전히 수험생은 입시전쟁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원서 제출 후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 그 답을 찾아보자.

### 1 모든 것은 전과 동일해라

우선 유의해야 할 점은 지원서 제출을 마쳤다고 해서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

일부 학생들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며 그동안 해 온 과외활동에 소홀해 지거나, 학교수업에 정성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입시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험천만한 판단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은 그동안 해온 내용과 속도가 똑같이 졸업할 때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외활동을 게을리 하거나 아예 중단하는 행위, 학교 수업에 충실



원서를 제출한 후에도 과외활동, 성적관리 등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 않는 것 등은 어느 순간 심각한 문제로 부상해 결국 자신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 이유는 대학들은 지원자가 대학 문을 넘어 오는 순간까지 계속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기전형에서 합격한 수험생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의 합격은 조건부이기 때문으로, 만약 성적이 하락하거나 나태한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언제든지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성적관리, 과외활동 등

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탈선 등 학생의 본분을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2 추가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에서 보내오는 메시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살펴보는 것이다.

즉 이미 제출한 지원서에서 혹 빠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학교

성적이나 추천서가 도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이메일을 체크해야 하며, 교사나 카운슬러의 도움이나 의논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연락해 해결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 지원자는 자신의 발전하는 모습을 지원한 대학에 알리는 것에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성적이 올랐거나, 나중에 발표된 SAT 또는 ACT 점수 향상, 지원서에 기재되지 않은 수상 내역 등 추가 정보들을 모아 꼭 알려야 한다. 특히 이는 조기전형의 보류 통보를 받은 학생들이나 정시전형 지원자들이나 다르지 않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인 만큼 잘 행겨야 한다.

### 3 부모와 학비문제를 논의한다

대학학비는 나중에 최종 입학 할 대학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제 연방 무료 학비보조신청(FAFSA)을 작성해야 하고, 사립대의 경우 추가로 CSS프로파일을 제출해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또 이를 통해 가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학비 수준을 어느 정도 가늠하고 대비해야 한다.

즉 아무리 들어가고 싶은 대학이라도 학비보조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부모와 수험생이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해마다 현실의 문

제에서 잦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4 장학금을 찾아보자

미국에서는 수많은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다. 현재 지원이 가능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는 것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 크든 작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보고 지원해 보도록 한다.

### 5 인터뷰는 좋은 기회다

지원한 대학으로부터 인터뷰 제안이 들어온다면 꼭 받아들일 것을 권한다.

통상 동문들이 담당하는 인터뷰는 합격에 결정적인 요소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좋은 시간을 만들어 낸다면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지원서에서 자신이 하려고 했던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면 인터뷰는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대신 미리 준비를 해야 하며, 예의를 갖추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터뷰 담당자가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나 김

시니어 디렉터, 어드미션 매스터즈  
(855)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http://www.TheAdmissionMasters.com)